

*Les Cabinotiers* **셀레스티아 애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

**워치메이킹 은하수계의 빛나는 새로운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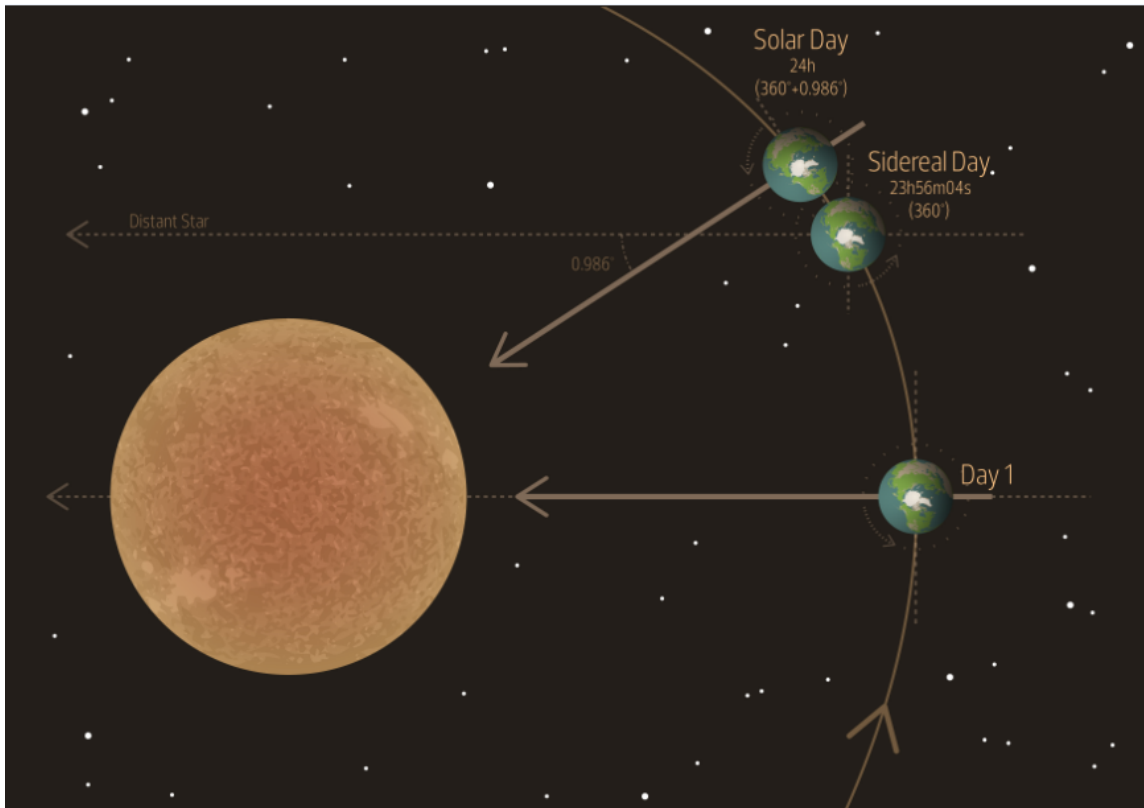
- 하나의 모델 / 5년간의 개발 / 한 명의 워치메이커 장인의 작업
- 가치 있는 천문학적 기능 / 23개의 시계학적 컴플리케이션 / 완전히 새로운 무브먼트 구성
- 회귀선 기어트레인과 같은 축으로 움직이는 균시차
- 3주간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투르비용
- 제네바 홀마크 인증

파인 워치메이킹의 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가 새롭게 떠올랐다: 독특한 트윈-다이얼의 *셀레스티아 애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은 천문학과 워치메이킹의 예술을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진 천체에 담아냈다. 23개의 핵심적인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은 시계의 앞뒤 다이얼에 나타나있으며 각각의 기어트레인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방식의 시간 -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를 확인할 수 있다.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내포된,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칼리버는 514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으며 두께가 8.7mm에 불과하며 여섯 개의 배럴을 통해 삼 주간 자체적으로 움직인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260 주년을 맞이하여 탄생한 57 개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Reference 57260 의 위대한 업적을 뒤이어 메종은 오늘날 *Les Cabinotiers 셀레스티아 애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 을 선보인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이 기계식 마스터 피스는 시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나타내는 뛰어난 발견이자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시계 제작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5 년간의 개발, 워치메이킹 장인의 헌신, 2 년간의 디자인 작업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Les Cabinotiers 셀레스티아 애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 에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두 개의 다이얼로 23 개의 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이 워치메이킹으로 탄생한 '천상의 모습'은 지금까지 제작해온 모델 중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며 천문 시계들의 자랑스러운 혈통을 계승하는 제품이다. 천문학은 천체에 대한 연구로써 시계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천체의 기원, 진화 및 특성을 설명한다.

축소화와 엔지니어링의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낸 새로운 바쉐론 콘스탄틴 칼리버 3600은 514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구성의 무브먼트이자 8.7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하며 20개 이상의 기능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3주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이는 천문 컴플리케이션 분야에 있어 메종에서 구축된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또 다른 생생한 입증이다. 이러한 전문성의 기원은 19세기의 퍼페추얼 캘린더, 문페이지, 항성시가 표기된 포켓 워치로 돌아간다. 그 후 1914년, 분침과 같은 축으로 움직이는 균시차 디스플레이가 갖추어졌다. 2005년에 선보인 투르 드 릴(16개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2015년 출시된 Reference 57260(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57개 컴플리케이션) 과도 같은 더욱 최근의 모델들은 주목할만한 업적들로써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에 대한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 - 세 가지 시간의 왈츠**



시계학적 장인정신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 독창적 타임피스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천문 컴플리케이션을 갖추었으며 지식, 계산, 정교한 조정간의 인상 깊은 조화를 보여준다. 이 제품의 매혹적인 기능들은 하나의 중심축을 지닌 세 개의 기어트레인으로 각각 구동되는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 - 세 가지 시간 표기를 특징으로 한다.

한 쌍의 화이트 골드 핸즈가 스쳐 지나가는 상용시(표준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면의 다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용시는 태양이 적도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평균적으로 24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일정한 속도로 1년 내내 회전한다는 가상의 원리를 근거로 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평균 태양시이다. 이러한 편리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한 해를 365.25 일로, 하루를 24 시간으로, 매시간을 60 분으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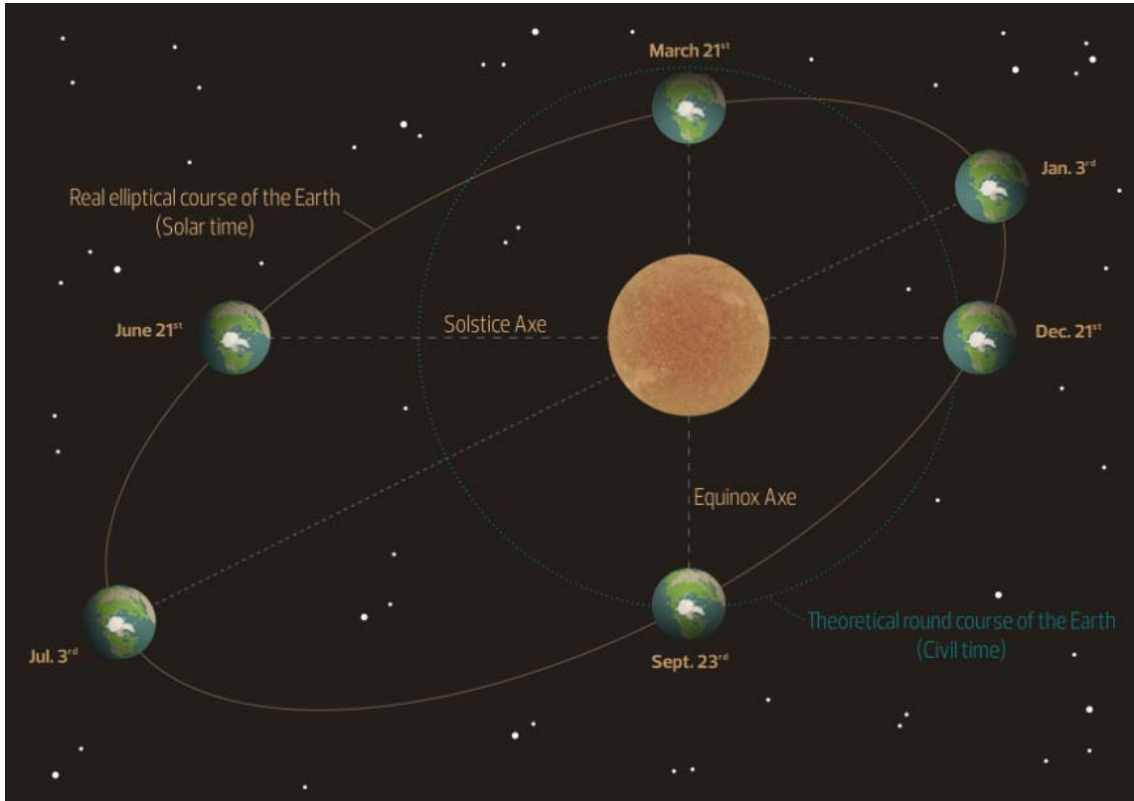
반면 진태양시는 하루의 코스에서 태양의 실제 궤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측정된 태양의 시각(자오선과 천체가 이루는 각도)을 통해 표현된다. 태양시와 평균시의 오차 범위는 +14에서 -16분이며 이 두 시간은 정확히 일 년에 네 번 일치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지구의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이며(둥근 것이 아니라), 태양이 그 궤도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가 지속적인 속도로 이 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지구의 자전 축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 별들의 머리

세 번째로, 항성시는 시계의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성시는 자오선에서 관찰되는 '고정된' 별의 거리를 계산하여 지구의 자전에 따라 측정하는 천문학적 시간측정법이며 평균시와 하루 약 4분 정도 차이가 난다. 즉 24시 항성시는 평균시로 23시간 56분 41초이다. 항성시의 시와 분은 두 개의 겹쳐진 사파이어 디스크를 사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방법으로 표현된다. 뒷면 다이얼의 아래에 위치한 천체에는 천체 시간 미닛-트랙과 네 개의 중요한 표기가 있다: 윗부분의 두 번째 디스크에는 별자리, 적도(흰색 원), 황도의(붉은색 원) 투영도가 나타나있으며 또 다른 디스크에는 지구에서 본 태양의 궤도가 표시되었다. 이러한 천체의 램버트식 도법은 북반구의 별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정한 과학 지도이다.

### **회귀년도 기어트레인과 같은 축으로 움직이는 균시차**

상용시와 태양시의 오차를 측정하고 표기하기 위해 이 타임피스에는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균시차 기능을 탑재했다. 게다가 '움직이는' 균시차 기능을 갖추었는데 이는 손목시계에서 보기 드문 기능이자 회귀년도 기어트레인과 같은 축으로 움직이는, 태양이 조각된 핑크 골드 핸즈로 태양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균시차는 +14 에서 -16분 측정이 가능한 다이얼의 보조창에서 핸즈를 움직여 디스플레이 되어왔으며 태양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암산을 필요로 해왔다. 움직이는 균시차는 훨씬 더 복잡한 제작 과정을 필요로 하며 태양시와 상용시를 즉각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정밀함과 정확함을 위해 균시차는 회기년을 나타내는 회기년 기어트레인으로 맞물려 있으며, 즉 1 회기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자 365.2421898일에 부합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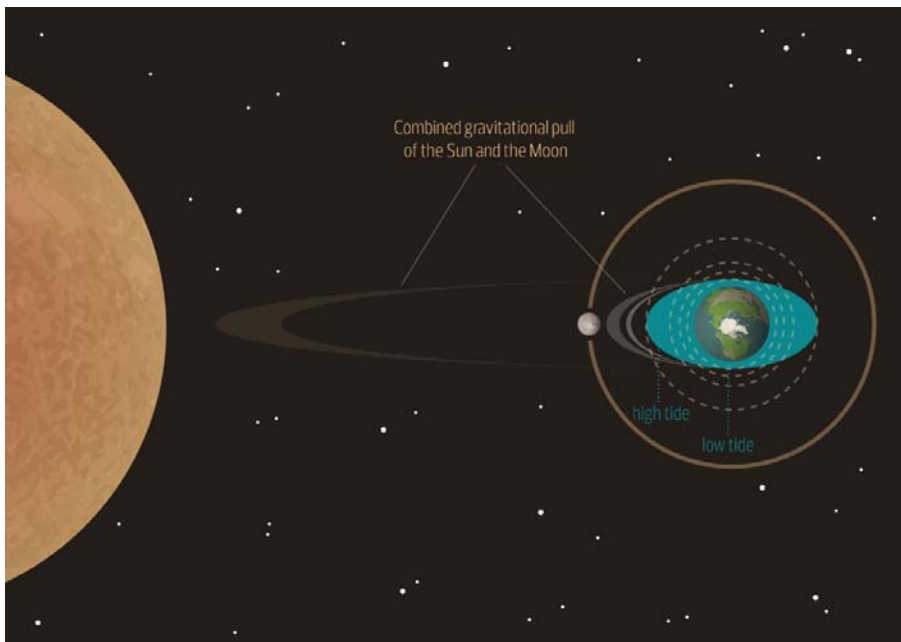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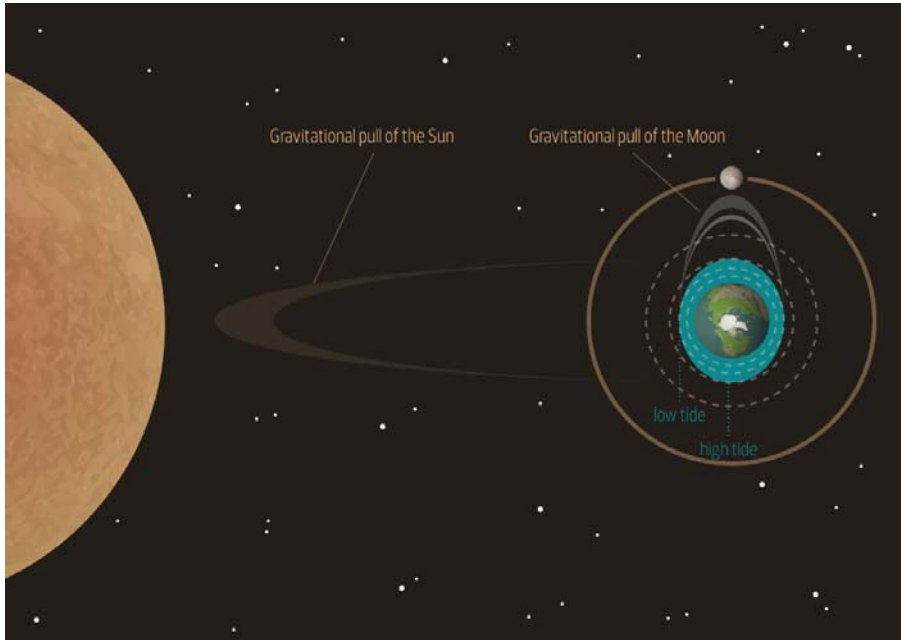
## 시간과 조류

이 독창적인 창작품은 23개의 컴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 된 양면 다이얼로 이루어졌다. 앞쪽의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에서는 예술적으로 놓인 15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시와 태양시(균시차) 또한 같은 축을 가진 세 개의 핸드로 구동되며, 정밀한 문페이스뿐만 아니라 조수간만의 차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와 태양-달-해가 3D로 묘사되어 있으며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 또한 갖추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 시간의 '기억'을 나타내는 퍼페추얼 캘린더는 그레고리력(현행 태양력)의 불규칙함도 기록 가능하며, 400년 동안 단 하루의 일자 변경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조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다이얼의 창을 통해 요일, 월, 윤년의 주기를 나타내며 구부러진 핸즈로 일자를 표시한다.

매혹적이면서도 우아함을 보여주는 정밀한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는 122년 동안 별도의 조정 없이 작동 가능하며, 두 개의 이중 디스크로 레이저 인그레이빙 된 보름달의 실제 이미지, 낮/밤 인디케이터, 지난 보름달 이래 흘러간 시기를 담은 달의 주기를 담아냈다. 이러한 보기 드문 기능들에 일출, 일몰 시간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두 가지 눈금 표시를 가리키는 가느다란 두 개의 핸즈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낮과 밤의 길이 또한 6시 방향의 독특한 게이지 타입 표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파인 워치메이킹의 하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컴플리케이션의 조합들은 네 시 방향에 위치한 반원 형태 창의 추가 기능들로 더욱 풍부해진다: 황도십이궁, 계절, 하지/동지, 춘분/추분. 하지/동지는 여름과 겨울, 일 년에 두 번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짧은 날을 의미하며, 춘분/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며 봄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 별의 투영도

시계 뒷면의 세컨 다이얼 또한 가치 있는 천문 기능들로 가득하다. 투명한 두 겹의 사파이어 디스크와 특허를 취득한 투명한 천체도의 독창성과도 같은 비현실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북반구에서 바라본 별자리를 묘사하고 월 인디케이션과 게이지 형태의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가 표기된 진회색의 내부 베젤로 둘러싸여 있다. 이 투명 디스크 위에 표기된 빨강과 흰색의 두 개의 타원은 황도 및 천구 적도의 투영도와 일치한다. 별자리 아래에 위치한 두 번째 디스크의 가장자리는 항성시와 방위기점을 보여주는 눈금으로 장식되었으며 진회색의 천구가 밤하늘을 보여준다. 이러한 혁신적인 투명한 하늘 지도 덕분에 6시 방향에 위치한 투르비용의 매력적인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 기술적 우아함과 축소화 기술

이례적인 타임피스를 구동시키는 극도로 복잡하면서도 특별한 칼리버 3600은 처음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외관의 정교한 피니싱 터치까지 5년간의 개발로 탄생하였다. 기계식 매뉴얼-와인딩 무브먼트는 세 개의 전용 기어트레인으로 작동하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시간 표현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천문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개씩 짝 지어진 여섯 개의 배럴로 3주라는 놀라운 파워리저브 기능을 이루어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매뉴팩처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과 동력 장치의 용량을 늘이는 것이다. 에너지를 최적으로 축적하고 또한 잘 전달하기 위해 배럴 스프링은 견고하면서도 연성의 소재인 바이오플렉스 Bioflex®\* 합금으로 제작하였으며 소용돌이 형태의 기어와 이상적인 방법으로 맞물리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배럴은 충분한 용량을 보장하며 칼리버가 가능한 한 얇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앙상블은 514 개의 부품으로 미세하게 조정되고 세심하게 장식 되었으며 오직 8.7mm 라는 두께를 자랑한다! 이러한 독창적인 메커니즘에는 정밀함과 정확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지 밸런스 휠이 탑재된 투르비용을 장착했으며, 45mm 직경의 화이트 골드의 우아한 케이스 안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 바이오플렉스®는 등록 상표로서 바쉐론 콘스탄틴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렷하고 시각적으로 조화로우면서도 독창적인 23 가지 기능의 디스플레이는 기술적이면서도 미적 아름다움을 갖춘 하나의 역작이다. 프론트 다이얼의 아름답게 균형 잡힌 레이아웃을 만들어낸 무브먼트는 뒷면의 매트 피니싱과 투명한 보석 마감으로 사파이어 디스크 디스플레이에 최적의 가독성을 선사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여타 컬렉션처럼 Les Cabinotiers *셀레스티아 애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은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권위 있는 품질 인증을 위한 수많은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표이다.

## 별들을 찾아서

캐비노티에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타임피스인 이 천문 슈퍼컴플리케이션 모델은 18세기 제네바의 “캐비노티에(독립시계 제작자)”의 전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매우 특별한 워치메이킹 장인들로 그들의 다락방에 위치한 작업 공간에서 전 세계의 명망 있는 고객들을 위해 진정한 맞춤시계를 제작시켰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이면서도 완벽히 맞춤화된 서비스와 시계학적 기술을 결합하여 탁월함의 철학을 영원히 지켜오고 있다. 극도로 희귀한 *셀레스티아 애스트로노미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600*은 단 하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화이트 골드 핀 버클 잠금장치의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장착되었다.

#VCSIH

#VCcelestia

<http://sihh.vacheron-constantin.com>



#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Celestia Astronomical Grand Complication*  
3600

### Reference

9720C/000G-B281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 Calibre

360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36 mm (1 5/8") diameter, 8.7 mm thick  
Approximately 3 weeks of power reserve  
2.5Hz (18,000 vibrations/hour)  
514 components  
64 jewels

### Indications

Hours, minutes, perpetual calendar, day/night indication, precision moon phase, age of the moon, running equation of time, sunrise and sunset time, day and night length, seasons, solstices, equinoxes and zodiacal signs, tide level indicator, Sun-Earth-Moon conjunction, opposition and quadrature, transparent sky chart of the northern hemisphere with indication of the Milky Way, of the ecliptic and celestial equator, hours and minutes of sidereal time, tourbillon, 3 weeks of power reserve (6 barrels), power reserve indication

### Case

18K white gold  
45 mm diameter, 13.6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 Dial

Slate-colored opaline  
18K gold applied hour-markers  
18K gold hands

###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 Clasp

18K 5N white gold triple-blade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 Accessories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and a magnifying glass

Unique timepiece

« Pièce unique » and « Les Cabinotiers » engraved on the back of the timepiece